

어서 떠도는 「기구한 원혼」

동아 1992. 01. 17.

작년 10월 후유증 시달리다 日천막집서 숨져

만사돈벨이 유골송환 추진

韓日정부 유족 알아서 하라



생전의 裴蜂奇할머니



故裴蜂奇할머니의 유자 유일녀

일본사회의 종군위안부
의「지옥간행」생활을 체험
담으로 고발했던 조선인종
군위안부출신 裴蜂奇할머니
(91년작고 당시 77세)가
한평생 정파의 무관심이
로 남았노라 영혼의 안락
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모두연고사망자로 처리된
뒤 현지의 한 남몰당에 보
관돼 있다.
그런데 서울의 택시운전
기사 金哲洙씨(38·江西구

榜尾동533호)는 구랍20일
의무부로부터「裴씨의 유
골제진문제를 상의하자」는
통고를 받고 처음 영문을
몰라 어딘가 망설였다.

평생「배봉기란 이름을
는 지니고 일본부를 방
문, 답답한 일본정부에서

『본이 문제가 아님니다.
도대체 裴할머니의 길잡이
함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의 기구한 운명을 설명했
고「영광만」찾아내고 국
평에 묻어 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현지 유년영사관이 관계
서류, 송치기관의 본인진술
들을 토대로 추적한결과
金씨자신이「한반도내에서
창출수 있는 유골의 연고
자」라는 설명도 그때 들었
다. 의무부 당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裴할머니는
金씨의 오래전에 사망한
만행수의 친정동생이라는
것.

『본이 문제가 아님니다.
도대체 裴할머니의 길잡이
함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정부는 뭐하
는 곳이고요 따져 볼것습
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담
변도 못하는 의무부직원을
보면서「왜냐」「어떻게」
이 문제라는 서를들을 느꼈
습니다.
金씨는 정신대의 참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난15
일 또 다시 찾아간 의무부로
부터도「유골을 찾아가는 만
든 그것」유족의 자유의
는 설명을 들었는데 더 이상
의 기대를 버리기로 했다.
그래서 金씨는 지난16일
정신대 문제대책회의회를
찾아가 변변히 진해신도처
리지 못한 裴할머니의 위령
제를 지내는 문제와 유골송
환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일본사회의 종군위안부
의「지옥간행」생활을 체험
담으로 고발했던 조선인종
군위안부출신 裴蜂奇할머니
(91년작고 당시 77세)가
한평생 정파의 무관심이
로 남았노라 영혼의 안락
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모두연고사망자로 처리된
뒤 현지의 한 남몰당에 보
관돼 있다.
그런데 서울의 택시운전
기사 金哲洙씨(38·江西구

榜尾동533호)는 구랍20일
의무부로부터「裴씨의 유
골제진문제를 상의하자」는
통고를 받고 처음 영문을
몰라 어딘가 망설였다.

평생「배봉기란 이름을
는 지니고 일본부를 방
문, 답답한 일본정부에서

『본이 문제가 아님니다.
도대체 裴할머니의 길잡이
함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정부는 뭐하
는 곳이고요 따져 볼것습
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담
변도 못하는 의무부직원을
보면서「왜냐」「어떻게」
이 문제라는 서를들을 느꼈
습니다.
金씨는 정신대의 참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난15
일 또 다시 찾아간 의무부로
부터도「유골을 찾아가는 만
든 그것」유족의 자유의
는 설명을 들었는데 더 이상
의 기대를 버리기로 했다.
그래서 金씨는 지난16일
정신대 문제대책회의회를
찾아가 변변히 진해신도처
리지 못한 裴할머니의 위령
제를 지내는 문제와 유골송
환문제를 협의하고 있다.